3면에서 계속

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대과를 하여 승문원 부정자副正字에 초임되었다가 곧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오르고 급제년 겨울에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이때 중국의 고사高士 고천준顧天俊이 사신으로 왔는데 공조판서 심희수沈喜壽가 관반사館伴使로서 이를 맞게 되어 옥봉이 이를 도와 예법과 문사文詞에 막힘이 없게 되니 심희수가 공을 애중하면서 늦게 등과하여 직위가 그 덕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601년에는 청환淸宦에서 밀려 외직 해미海美현감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평이한 정사로 고을 백성의 열복을 받았으나 이태 뒤 다시 전라도 해말海末의 강진康津현감으로 전임케 되니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다.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의 좌랑이 되고 호조좌랑을 거쳐 선조 38년, 1605년에 54세로 예조의 좌랑이 되어 과시科試의 실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때 별시別試의 과장에 과생이 잠입하여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범인들이 모두 당로자의 자제였다. 이를 모두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니 권귀의 꺼림을 사 환로가 또 막혔다. 귀향하여 4년여가 지난 후 새 임금 광해군이 즉위한 다음해 1609년에 58세로 겨우 수성도輸城道 찰방에 제수되자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였다. 이후 광해조의 난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는 다시 출사할 생각을 버리고 향당에 은거하며, 회갑을 넘겨 62세가 되던 광해군 5년, 1613년 가을에는 학가산鶴駕山 광흥사廣興寺에서 안동 일대 유림의 1552년 임자壬子와 1553년 계축癸丑생 기덕자耆德者 11인이 모여 임계계壬癸契를 결성하여 매년 취회聚會 시에 향약鄕約을 맺어 시행해 고을의 풍속을 정화하고 시문을 창수唱酬하며 산수를 벗해 여생을 독서로 자오自娛하려 하였다. 이것이 후일까지 안동지역에서 이름 높은 임계계회가 되었다. 이때의 계회원은 수선首先이 공, 즉 전좌랑 만수漫　권위權暐이고, 이어 참봉 석림石林 박흡朴洽, 유학 남천南川 최집崔集, 전찰방 송음松陰 김윤사金允思, 전현감 정봉定峯 안담수安聃壽, 유학 송탄松灘 하우성河遇聖, 판사判事 원곡猿谷 손경홍孫慶弘, 유학 곡강曲江 이호李瑚, 충의위忠義衛 송헌松軒 조승선趙承先, 전현감 하암河巖 허응길許應吉, 전순릉順陵참봉 매호梅湖 권행가權行可 등인데 그 계회도契會圖가 지금까지 전하는 게 있고 현재 도계서원 경외에는 그 기념비가 서 있다. 또한 후인들이 그 취지를 계승하여 4백년에 이르도록 도계서원의 만대헌晩對軒에서 이 계회를 이어오고 있다.

광해군 8년, 1616년에 65세가 되어 대과급제 15년의 대부大夫로서 옥봉은 동도東都 경주부慶州府의 교수敎授로 임명되니 기용의 예우가 아니었으나 오히려 유생을 양성하는 직임인지라 그 말직임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부임하였다. 그리고 경주에서 열심히 후진을 기르며 틈이 나면 산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회포를 풀었는데 이때 일기체로 기술해 남긴 것이 ‘동경일록東京日錄’이다. 동경 교수에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조의 정랑正郞으로 승진 보임되었으나 굳이 사직하고 나가지 않았고, 다시 형조의 정랑으로 전보되었으나 또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10수년을 잊혀진 채 향리에 은거하며 오직 후학을 기르고 임천林泉을 즐기던 중 인조 4년, 1626년 여름에 혹서임에도 종가의 기제忌祭를 친집하고 돌아오다 가마에서 낙상하여 득병하니 75세의 고령이었다. 그리고 4년을 와병하고 인조 8년, 1630년 2월 5일에 고종하니 향년 79세였다.

▲ 모현사의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제물 진설의 희생에서 특이한 계생의 모습

■사후 57년에 세운 도계정사로 비롯

월천 조목 · 학봉 김성일 · 유일재 김언기 세 퇴계의 적전에게서 배운 옥봉은 군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쓰면서 자제를 가르치기를 ‘선비란 제 본분에 맞는 공부가 있으니 과거는 단지 그 말사末事에 불과할 뿐이요, 한갓 외물外物에 이끌리어서는 안된다’하였다. 그리고 사장詞章에는 크게 힘쓰거나 조탁彫琢을 일삼지 않아 문사가 평담간아平淡簡雅하여 구화口話를 하듯 자연스러운 가운데 문장을 이루었다. 그 유시문이 ‘옥봉집玉峰集’으로 편수되어 4권 2책으로 인간되었는데, 목판본이 이루어진 것은 대개 사후 180여년 후인 순조조로서 귀와龜窩 김굉金㙆(1739~1816)이 서문을 짓고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1777~1861)이 발문을 지었다. 1권에는 5언시 52수와 7언절구 88수가 실리고, 2권에는 7언시 63수와 소疏 1편이 실리고, 3권에는 서간 6편과 잡저 5편, 축제문 15편, 행장 1편, 비문 및 묘지 4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4권은 부록으로서 사후에 남에게서 받은 만사 · 묘지명 · 행장 및 봉안문 · 축제문 · 상량문 등이 실려 있다. 그 갈명碣銘과 지명誌銘은 갈암葛菴 이현일李玄逸과 유회당惟懷堂 권이진權以鎭이 지었다.

도계서원은 그 연원이 옥봉공 사후 57년이 지난 숙종 13년, 1687년에 안동지역 유림의 공의로 도계촌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도계정사道溪精舍를 세우고 거기에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받들면서 비롯되었다. 처음에 이를 마을 사당이라는 뜻의 ‘이사里祠’로 부르며 유림이 행사를 해오다가 점차 향현사鄕賢祠로서의 규모를 갖추어 왔는데, 2백여년이 지난 고종 5년,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다시 60년이 지난 1928년에 옥봉공이 생세에 거처하며 강학하던 만대헌晩對軒에 사당을 복설하여 도계서원

▲ 임계계회 기적비

▲ 도촌서원의 묘우 모현사

으로 승격시켜 제향을 받들게 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증축을 거듭하였으며 20년여 전인 1991년에 묘우廟宇 모현사慕賢祠와 강당을 중수하고 동재東齋 상의재尙毅齋와 홍도문弘道門 및 주사廚舍 등을 신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원의 묘우 모현사慕賢祠는 정면 3간, 측면 2간의 맞배지붕으로서 양측 합각合閣 박공뜰 에 풍판風板을 달았고 이 안에 옥봉공 독향의 위판이 봉안되고 있다. 경내에서 서쪽으로 다소 높은 언덕에 위치한 묘우에는 따로 내장內墻과 신문神門이 있다. 그 동쪽 아래에 자리한 강당이 명륜당明倫堂으로 정면 4간, 측면 2간이며 가운데에 너른 마루 정당正堂 면벽에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고 이곳이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의 장소이다. 양 옆은 협실인데 동협재는 행사 시의 헌관실, 서협재는 재석齋席 및 별유사의 재실이다. 그리고 이 강당의 앞 처마 아래 도계서원의 현판이 붙어 있다. 강당의 왼쪽 동재가 전 3간, 측 1간에 강당과 마찬가지 팔작지붕으로 상의재尙毅齋라 현액되어 있는데 유생이 기거하며 강학하던 곳이다. 강당 앞 마당을 건너 외삼문이 홍도문弘道門으로서 솟을대문 형태이나 대문만이 있고 양협문이 담으로 막혀 안에 헛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도계서원의 진수는 동재 뒤 동쪽에 별도 건물로 자리한 만대헌晩對軒이다. ㄱ자 형태로 덧댄 호두각虎頭閣이 작은 헛마루를 이룬 이 집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2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정자는 옥봉이 36세이던 선조 20년, 1587년에 건립하여 강학지소講學之所로 삼은 것이니 420여년이 된 고건축이다. 그 당마루 정면벽 상단에는 옥봉이 임진란 당시 명장 주원조朱元兆와 화답한 시문이 걸려 있다. 서향인 당의 왼쪽은 온돌방이고 오른쪽은 우물마루를 깐 방이며 북쪽 온돌방 앞으로 반 간의 호두각 같은 퇴를 돌출시켜 전체가 ㄱ자형이 되게 한 것이다. 이 집 만대헌의 편액은 명필이던 옥봉의 아우 연어정鳶魚亭 권오權晤(1555~1639)의 필적이다. 이 만대헌에는 안동권씨 최초의 족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 ‘성화보成化譜’의 초간본이 보존되고 있었다. 성종 7년, 1476년에 발간된 성화보는 1927년에 복각한 중간본도 희귀하고, 그 초간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유일본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음이 1980년대에야 세상에 알려진 바였다. 이는 도계촌의 취규재 종가에 있던 세전의 고문서를 통째로 도난당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은 옥봉공의 13대 종손 고 권오성權五成(20수년 전 별세, 독립운동가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과 남매간)씨가 이를 고심 끝에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여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천지인天地人 3권의 표지에 작은 글씨로 ‘성화병신보成化丙申譜’와 큰 글씨로 ‘안동권씨족보安東權氏族譜’라 세로로 인쇄된 이 고서의 천권 앞표지 이면에는 그 3책의 내용으로 ‘성화보 서序가 3장, 천자권이 57장, 지자권이 54장, 인자권이 71장, 발跋이 1장, 추보지推譜識가 1장 임을 밝혀 써 넣은 아래쪽에 ‘만대헌소장晩對軒所藏’이라 추가한 글씨

7면으로 계속